
2017/04/02(주) 주일예배 / 제목 :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딤후 2:4) p.338

(4)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들어가는 말 /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론 /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08년 5월 12일 오후 2시에 리히터 규모 8.0의 대지진이 중국 쓰촨성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지진으로 사망자 7만 명, 중상자 37만 명, 실종자 1만 8천 명이 발생했습니다. 경제적 피해는 24조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쓰촨성 대지진 하루 뒤인 2008년 5월 13일 오후, 폐허 속에서 구조대는 두 팔을 땅에 짚고 무릎을 꿇은 웅크린 자세로 숨을 거둔 20대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식사 중 젓가락을 채 놓을 새도 없이 몇 십톤에 이르는 무너진 건물 잔해를 온몸으로 지탱하며 죽은 한 여인. 발견 된 그녀의 몸 안쪽에는 잠든 어린 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기는 전혀 다치지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엄마는 딸에게 모유수유까지 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발견된 휴대폰에 엄마가 남겨놓은 문자는 중국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내 아가, 만약 네가 살게 된다면 이것만은 기억해주길...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자신은 죽어도 아이 만큼은 살리고 싶은 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생명을 살리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의 눈물을 남깁니다. 이런 사랑으로 주님께서도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어머니가 그 아기를 살려낼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대속물로 삼으심으로 우리를 살려내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마음이 독생자를 주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본론 /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1.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도 **(벧전 3:9)** “하루가 천년 같이 천년이 하루 같이 기다리시며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고 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5:7절에도 **(눅 15:7)**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 아홉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인류가 하나님께 돌아와 하

나눔을 아버지로 섬기며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죄와 죽음과 지옥의 고통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오” 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어서 돌아오오 어서 돌아만오오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감당하고 못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 어서 돌아오오 어서 돌아만오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 어서 돌아오오 어서 돌아만오오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주시는 우리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오 어서”

그러나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톨스토이의 참회록에서 인생을 이런 이야기를 설명하였습니다. 어떤 나그네가 광야를 지나다가 사자가 덤벼들었습니다. 살기 위해 물 없는 우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물 속에는 큰 뱀이 큰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물 밑바닥으로 내려 갈 수 없습니다. 내려갈 수도 없고, 우물 밖으로 나올 수도 없는 나그네는 우물 안의 돌 틈에서 자라난 조그만 관목 가지에 매달렸습니다.

나그네는 우물 밖에도 우물 바닥에도 자기를 기다리는 짐승이 있으니 얼마 지나지 않아 죽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냥 나뭇가지에 매달려 나무를 쳐다보니, 검은 쥐와 흰쥐 두 마리가 나뭇가지를 갈가 먹고 있었습니다. 두 손은 놓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은 나뭇가지가 부러져 나그네는 우물 밑에 있는 큰 뱀의 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날 방법을 찾으려고 주위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뭇잎 끝에 흐르고 있는 몇 방울의 꿀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혀로 핥아먹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인간이 산다는 것이 꼭 이 모양이라고 비유로 설명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죽을 줄 알면서도 그것을 잊어 버리고 세상 향락에 취해 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곡간을 더 크게 짓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향하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어리석을 자를 향해 시편14편 1절에서는 (시 14:1)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딤펴전 5:6)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언제인가는 알 수 없지만 검은 쥐와 흰 쥐가 나무 가지를 갈가 먹으면 마침내 인생은 끝이 날 것입니다. 잠시 건강과 쾌락, 부와, 권력, 명예, 좋은 집에서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다 놓고 죽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작에는 반드시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 뒤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히 9:27)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천국에서 상급의 심판이 있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가는 형벌의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눅 16:19~26)를 통해 지옥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 주었습니다. 우리는 지옥의 처참함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토마스 부룩스는 말하기를 "만일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고통과 슬픔, 비참함과 불행을 한꺼번에 당한다 해도 그것은 지옥의 가장 가벼운 고통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지옥은 끔찍한 곳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지옥을 막연한 동화의 세계로 만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지옥의 형벌을 얼마나 처참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이곳으로 사람을 보내길 원하지 않습니다. 이곳에 가지 않는 길을 명백하게 보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이 스스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다 구원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 3:17)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47절에도 나옵니다. (요 12:47)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없다고 우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고 교만하게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영원한 지옥으로 찾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음도 고통도 눈물도 슬픔도 없는 천국에 모든 사람이 다 구원 받아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히틀러의 독재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 일생을 투쟁한 본회퍼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에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어느 미친 운전사가 차를 몰고 있습니다. 그는 전진하면서 많은 교통사고를 일으키며 달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고 만일 기독교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앉아 기도만 해주겠습니까? 아니면 미친 운전사를 끌어 내리겠습니까?” 히틀러는 자신을 비판하는 그를 감옥에 투옥시켰고 사형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음 직전에 환상을 보고 남겼다는 일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환상 중에 자신의 원수인 히틀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히틀러에게 “너는 그동안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무고한 피를 흘리게 했으니 지옥으로 가서 고통을 받아야 한다.” 그러자 히틀러가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죽어서 이러한 세계가 있는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만일 제가 알았다면 그렇게 큰 죄는 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저에게 이런 것을 알려 주지도 않았고 또 전도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본회퍼는 가슴을 치며 이렇게 회개했습니다. “주님, 저는 그의 독재를 비판하고 그를 끌어 내리려고만 했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입술로 전해야 합니다. (단 12:3)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삶으로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끔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1.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2.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4:6절에, (요 14: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이며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구원의 지식을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다는 말은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부가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처럼 온 마음과 몸으로 아는 것입니다. 전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이 있습니까? 변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변치 않는 것이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들은 과학적 사실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과학적으로는 중력 때문에 물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물위를 걸으셨습니다. 어떤 것이 진리입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물위로도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과학적으로는 반석에서 물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반석에 물을 내어서 200만 명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어느 것이 진리입니까?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상식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물은 물이지 상식적으로는 포도주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어느 것이 진리입니까?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고래뱃속에 사람이 들어가면 상식적으로는 죽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3일 동안 죽지 않고 살아 나왔습니다. 어느 것이 진리입니까?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현재 존재하는 동물들 중에 가장 큰 동물이 코끼리입니다. 코끼리는 다 자라면 키가 3~4 미터 정도가 됩니다. 무게는 대략 5톤이 넘습니다. 코끼리가 한 번에 들어 올릴 수 있는 무게는 약 500킬로그램이 됩니다. 야생 코끼리는 웬만한 나무 정도는 땅에서 뿌리째 뽑을 수 있을 만큼 힘이 셉니다. 그런데 서커스단의 코끼리는 뭔가 이상합니다. 산처럼 큰 코끼리가 작은 말뚝에 묶여 있습니다. 웬만한 나무를 뿌리째 뽑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코끼리가 마음만 먹으면 작은 말뚝을 뽑아 버리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 텐데 왜 작은 말뚝에 발이 묶인 채 꼼짝을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코끼리가 새끼였을 때 서커스단에 팔려오면 말뚝에 묶어둡니다. 새끼 코끼리는 묶인 끈을 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이때는 너무 어려서 말뚝을 뽑을 만큼 힘이 세지를 못합니다. 새끼 코끼리는 묶인 끈을 풀려고 몸부림치고, 말뚝을 뽑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힘이 부쳐 도저히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새끼 코끼리는 큰 좌절을 겪게 됩니다. 자신의 발을 묶고 있는 끈을 끊을 수도 없고, 말뚝을 뽑을 수도 없다고 스스로 포기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코끼리는 그렇게 자랍니다.

코끼리가 다 자라 힘이 세져서 이제는 작은 말뚝을 쉽게 뽑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부터 안된다는 생각에 져서 스스로 포기하고 묶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시도를 하지도 않습니다. 코끼리가 어렸을 때는 작은 말뚝에 몸이 묶여 있었지만 다 자란 후에는 마음이 작은 말뚝에 묶여 있는 것입니다. 작은 말뚝에 묶여 있는 코끼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무엇인가 마음이 묶여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 별로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데 그 문제에 묶여 찢찢 매며 움짱달짝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훌훌 털어버리면 쉽게 잊어버리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것에 매여 인생을 힘겹게 살아갑니다. 그 문제에 마음이 묶여 있고, 눌러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마다 그들의 마음을 묶고 있는 것이 다릅니다. 물

질에 마음이 묶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 염려증, 외모의 콤플렉스, 학벌의 콤플렉스, 성공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분노, 욕망, 미움 등에 묶여 있습니다.

무언가에 마음이 묶여 있는 사람은 쉽게 포기하고, 쉽게 분노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감사와 기쁨이 없고 원망과 불평하는 삶을 삽니다. 새로운 것과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로 알면 그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내 마음을 묶고 있는 욕망의 줄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으면 우리의 마음을 묶고 있는 욕망의 줄을 풀고 자유 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38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에 말씀이 있습니다. (요 18:38)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나 하더라” 빌라도는 진리를 앞에 두고 진리를 찾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신령한 지혜가 아니면 진리를 알지도, 찾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진리를 알 수가 있으며 그 진리를 알게 될 때에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진리 중의 하나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구원받는 진리입니다.

결론 /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지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끊임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곧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핵심 :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이 다 됩시다.

요약정리 /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1.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2.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